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六)·莊王既成》篇 譯釋*

文炳淳**

<目 錄>

1. 緒論
2. 竹簡譯釋
 - 1) 竹簡考釋
 - 2) 竹簡國譯
3. 結論

1. 緒 論

《莊王既成》篇은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六)》(이하 《上博(六)》로 略稱함.)의 세 번째 篇으로, 《申公臣靈王》篇과 함께 총 아홉 개의 竹簡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簡의 중간부에 비교적 굵게 ‘’ 표시를 하여 두 篇을 구별하고 있는데, 부호 앞부분까지가 《莊王既成》에 속한다. 《莊王既成》篇은 총 네 개의 竹簡으로 구성되어 있다. 竹簡의 외관적 특징으로는, 길이가 약33.1cm에서 33.8cm, 너비는 0.6cm, 두께는 0.12cm이며 모두 회손 없이 완전한 형태로 출토되었다. 가죽 끈으로 묶은 흔적이 두 곳에 보이고 있으며, 글자는 標題포함 총 93자이다. 篇名은 第1簡의 뒷면에 ‘莊王既成’ 이라 적혀있어, 관례에 따라 본 篇의 제목으로 확정하였다.

* 본 연구는 2008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慶南大學校 中國學部 助教授

본 편에 등장하는 楚나라 莊王은 春秋五霸중 한 명으로, BC 613년부터 BC 591년까지 23년간 집권한 春秋시기 인물이다. 또한 ‘三年不飛, 飛將衝天, 三年不鳴, 鳴將驚人.’, ‘問鼎輕重’, ‘絕纓之宴’ 등 많은 일화를 남겼으며, 楚나라 역사에서 최고 강성 시기의 왕으로 전해지고 있다.

2. 竹簡譯釋¹⁾

1) 竹簡考釋

(1) 竹一

【原文】

臧(莊)王^①既成(城)^②亡^③鏖^④, 以昏(問)^⑤醜(沈)尹子極(莖)^⑥曰: “虛(吾)^⑦既果城無鏖, 以共(供)春秋之黨(嘗)^⑧, 以【竹一】

① 臧(莊)王

莊王은 楚나라 穆왕의 아들로, BC 613년부터 BC 591년까지 23년간 왕위에 있었으며, 春秋五霸중 한 명으로 楚나라를 강국으로 이끈 역사적 인물이다.²⁾

② 成

우선 본 편에 보이고 있는 ‘成’ 과 ‘城’ 의 字形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편은 馬承原의 《莊王既成》,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六)》釋文考釋을 기본으로 삼았으며, 竹簡의 釋文은 편의상 일반적인 문자를 다수 사용하였다.
2) 莊王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史記·楚世家》 참조.

甲.  竹1背 乙.  竹1.4 丙.  竹1.17

본篇 정리자인 陳佩芬은 甲과 乙은 ‘成’으로 隸定하고, 丙은 ‘城’으로 隸定하고 세 字形 모두 ‘成’으로 해석하고 있다.³⁾ 그러나 본 편에서 ‘成’과 ‘城’ 모두 ‘城’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城’은 ‘成’에서 파생되어 나온 字形으로 古文字중 자주 混用되고 있다. 예를 들어, 包山楚簡120에 보이고 있는 지명 ‘陽城’이 121에는 ‘陽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楚나라 印章에 자주 보이고 있는 지명 後綴 ‘城’이 《古璽彙編》0179 〈樂成里璽〉중 ‘成’으로 쓰이고 있다. 특히 印章에 쓰인 ‘成’ 字形은 甲의 字形과 일치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편에서 ‘亡鏤’을 ‘無鏤’으로도 쓰고 있는데, 그 중 ‘亡’과 ‘無’ 역시 混用되고 있다. 따라서 본 편중 ‘成’ 字는 ‘城’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城亡鏤’과 ‘城無鏤’에서 ‘城’은 ‘성을 짓다’라는 動詞 용법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詩經·小雅·出車》：“天子命我，城彼朔方。”(천자께서 내게 명하시어, 저 북방에 성을 쌓게 하시었네.)

《左傳·僖公23年》：“楚成得臣帥師伐陳……城頓而還。”(초나라 成得臣이 군사를 이끌고 진나라를 공격하여……頓에 성을 쌓고 돌아왔다.)

《左傳·隱公7年》：“夏，城中丘。”(여름에 中丘城을 세우다.)

따라서 본 편의 ‘城亡鏤’은 先秦文獻에 자주 보이는 ‘城+地名’의 형식으로 볼 수 있겠다. 고대사회에서 城을 짓는다는 의미는 영토의 확장과 더불어 세금을 징수하여 부유해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③ 亡鏤

본 편에서 ‘亡鏤’을 ‘無鏤’으로도 쓰고 있는데, 그 중 ‘亡’과 ‘無’ 서로


3) 馬承原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六)》, pp.242-243.

通用되고 있다. 본 편 정리자인 陳佩芬은 ‘無敵’으로 해석하고 있다.⁴⁾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亡鑣’과 ‘無鑣’은 地名으로 보아야 한다. 이 지명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다.

④ 昏(問)

楚나라 문자 중 ‘從昏聲’字는 ‘問’, ‘聞’字와 通用되고 있다.⁵⁾

⑤ 醕(沈)尹子棼(莖)

이 글자의 원래 형태는  로, 본 편 정리자인 陳佩芬은 ‘醕’로 隸定하고 ‘沈’으로 읽고 있다. 또한 《呂氏春秋·不苟論·贊能》에 보이는 ‘沈尹莖’을 근거로, 본 편의 ‘醕尹子棼’과 동일 인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형은 金文 및 楚簡에 이미 보였던 것으로, ‘從酉, 從尢, 從白’인 ‘醕’로 隸定해야 한다.⁶⁾

‘沈尹子莖’은 春秋시기 楚나라의 賢者로 莊王이 尹으로 등용하고자 하였으나, 극구 사양하고 대신 孫叔敖를 추천하여 莊王이 霸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는 기록이 《呂氏春秋·不苟論·贊能》에 남아있다.

⑥ 虛(吾)


‘虛’字의 聲符인 ‘尢’는 上古音에서 ‘曉母魚部’에 속하고, ‘吾’는 ‘疑母魚部’에 속해 聲母는 같은 舌音에 속하고, 韻部는 같은 魚部로 假借될 수 있다.

⑦ 棠(嘗)

4) 馬承源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六)》, p.242.

5) 何琳儀, 《戰國古文字典》, p.1311.

6) 이 字形에 대해서는 이미 趙平安이 상세한 분석을 해놓았다. 〈釋‘醕’及相關諸字〉, 《古文字研究》第24輯, p.283.

이 글자의 원래 형태는  로, ‘從示, 尙聲’ 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楚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嘗’ 으로 읽는다.⁷⁾ 《爾雅·釋天》: “秋祭曰嘗.” (가을 제사를 嘗이라 한다.)

(2) 竹二

【原文】

臧(莊)王既成(城)①【竹一 뒷면】時(待)②四隣之賈(賞)③, □④後之人幾可(何)保之? 醢(沈)尹固辭.王固昏(問)之,醢(沈)尹子經(莖)舍(答)⑤【竹二】


① 臧(莊)王既成(城)

第1簡의 뒷면에 ‘莊王既成’ 이라 적혀있어, 관례에 따라 본 篇의 제목으로 볼 수 있다.

② 時(待)

‘時’ 字는 楚簡에서 ‘詩, 侍, 待’ 등 ‘從寺聲’ 글자와 通用되고 있다.⁸⁾ 따라서 본 구절에서는 ‘待’ 혹은 ‘待’ 로 읽을 수 있고 ‘접대하다’, ‘섬기다’ 의 미로 볼 수 있다. 본 篇 정리자인 陳佩芬 역시 ‘待奉’ 의 의미로 읽고 있다.⁹⁾

③ 賈(賞)

이 글자의 원래 형태는  로 본 편 정리자인 陳佩芬은 ‘從貝, 高聲’ 으로 隸定하고 ‘賞’ 으로 읽고 있다.¹⁰⁾ 이 字形에 대해 아직까지 의견이 紛紛하다. 각

7) 何琳儀, 《戰國古文字典》, p.681.

8) 鍾明,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五)研究概況及文字編》, p.36.

9) 馬承源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六)》, p.244.

10) 馬承源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六)》, p.244.



각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何有祖：陳佩芬과 隸定은 같으나 ‘犒’ 로 읽어야 한다.¹¹⁾



李學勤：陳佩芬과 隸定은 같으나 ‘徼’ 로 읽어야 한다.¹²⁾


蘇建洲：‘從命，從貝’ 로 隸定하고 ‘賓’ 으로 읽어야 한다.¹³⁾

먼저 이 字形을 ‘從貝，命聲’ 로 隸定하고 있는 蘇建洲 의견을 살펴보자. 字形의 下部가 ‘從貝’ 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上部를 ‘命’ 字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蘇建洲가 근거로 제시한 包山楚簡92의 ‘從貝，命聲’ 을 본 자형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甲.  《上博(六)·莊王既成》2 乙.  《包山楚簡》92

두 字形을 자세히 살펴보면 上部에서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다. 甲의 上部는 ‘’ 형태로 가운데 공간이 마름모꼴을 하고 있다. 그러나 乙의 上部는 ‘’ 형태로 밑의 획이 직선으로 되어있다.

두 번째로 두 字形의 중간 부분에도 차이점이 있다. 甲은 ‘’ 형태로 ‘사람이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모습’ 좌측에 ‘ノ’ 빼침이 추가되어 있는데, 乙은 ‘’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乙을 ‘從命(혹은 命)，從貝’ 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甲과 같은 字形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高)  (命)

그렇다면 정리자인 陳佩芬의 의견처럼 ‘從貝，高聲’ 으로 보기에도 다소 무리

11) 何有祖, 〈上博六札記〉, <http://www.bsm.org.cn>.

12) 李學勤, 〈讀上博簡《莊王既成》兩章筆記〉, <http://www.confucius2000.com>

13) 蘇建洲, 〈初讀《上博六》〉, <http://www.bsm.org.cn>.

가 있다. 戰國문자중 ‘高’ 字의 下部가 ‘𠂔’ 형태로 쓰인 예를 찾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字形이 ‘從貝, 高聲’ 인지? 아니면 ‘從貝, 命聲’ 인지? 더 나아가 다른 字形일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¹⁴⁾

④ □

본 字形은 이미 회손 되어 판독할 수 없으나, 陳偉가 앞뒤 문맥을 참고로 ‘𠂔’ 字로 추측하고 있다.¹⁵⁾ 그러나 竹簡에 나타난 字形의 윤곽으로 추측할 때, 본편 竹簡1에서 ‘𠂔’ 로 읽고 있는 ‘虛’ 字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⑤ 𠂔(答)

이 字形은 ‘從曰, 合聲’ 으로 楚系문자중 ‘合’, ‘會’ 로 사용되고 있다.¹⁶⁾ 《玉篇·田部》: “𠂔, 今作答.” 《集韻·合韻》: “答, 古作𠂔.” 《經典釋文》: “𠂔, 古答字.” 따라서 ‘合’ 聲符를 사용하는 두 글자는 通用될 수 있다. 그러나 陳偉는 <대답하다> 라는 의미의 <合> 字는 後世에 <答> 과 <對>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先秦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는 <答曰> 보다 <對曰> 이 자주 등장하기에 楚簡에서 <對曰> 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 그러나 두 어휘 중 어떤 것을 사용하든 문맥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또한 先秦 문헌 중 <答曰> 도 사용되고 있기에 굳이 <對曰> 로 바꿔 해석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¹⁸⁾

(3) 竹三

14) 본 논문에서는 임시적으로 陳佩芬 의견에 따라 ‘從貝, 高聲’ 으로 隸定하고, 何有祖의 의견에 따라 ‘𠂔’ 로 해석한다.

15) 陳偉, <讀上博六札記>, <http://www.bsm.org.cn>.

16) 何琳儀, 《戰國古文字典》, (北京: 中華書局, 1998), p.1387 참조.

17) 陳偉, <讀‘魯邦大旱’札記>, <http://www.jianbo.org>.

18) 《尚書·顧命》: “王再拜興, 答曰, 眇小子未小子, 其能而亂四方, 以敬忌天威, 乃受同瑁, 王三宿三祭三咤, 上宗曰, 饗, 太保受同, 降盥, 以異同秉璋以酢.” 《左傳·文公12年》: “主人三辭, 賓答曰: ‘寡君願徼福于周公, 魯公以事君, 不腆先君之敝器, 使下臣致諸執事, 以爲瑞節, 要結好命, 所以藉寡君之命, 結二國之好, 是以敢致之.’ ”

【原文】

曰：“四與五之間①**𡗗**(乎)②!” 王曰：“女(如)四與五之間，載之**𡗗**(專)車③以上
𡗗(乎)? **𡗗**(繫)④四航⑤以【竹三】

① 四與五之間

본篇 정리자인 陳佩芬은 《易經》에 자주 보이는 용어로 해석하고 있다.¹⁹⁾ 그러나 본 구절은 楚莊王의 질문 “□後之人幾何保之?” (나의 후손이 얼마나 보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莊王 이후의 4, 5代 후손으로 해석해야 적합하다.²⁰⁾

② **𡗗**(乎)

‘**𡗗**’ 字의 聲符인 ‘**疋**’ 는 上古音에서 ‘曉母魚部’ 에 속하고, ‘乎’ 역시 ‘曉母魚部’ 에 속해 두 글자는 通假될 수 있다. 楚系 문자에서 자주 보이는 용례이다.

③ **𡗗**(專)車

본篇 정리자인 陳佩芬은 ‘**𡗗**’ 을 ‘傳’ 으로 읽고, 睡虎地秦簡을 근거로 ‘驛車’ 로 해석하고 있다.²¹⁾ 그러나 본 구절은 뒤 구절 ‘四航以逾’ 와 對句 관계로 볼 때, ‘專車’ 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²²⁾ ‘專車’ 는 《國語·魯語下》에 보이고 있는데 ‘수레 가득’ 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④ **𡗗**

이 字形은 楚系문자중 ‘**𡗗**’ 혹은 ‘**𡗗**’ 로 쓰기도 한다. 고문자중 ‘**𡗗**’ 偏旁

19) 馬承源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六)》, p.245.

20) 陳偉, 〈讀上博六札記〉, <http://www.bsm.org.cn>.

21) 馬承源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六)》, p.245.



22) 陳偉, 〈讀上博六札記〉, <http://www.bsm.org.cn>.

은 ‘支(女)’, ‘戈’ 偏旁과 구별 없이 通用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毳’ 의 異體字로 보고 있다. ‘毳’ 는 先秦문헌중 ‘繫’ 로 쓰이고 있다.

본 구절은 “載之專車以上乎? 毳四航以逾乎?” 를 묻는 선택의문문이다. 따라서 ‘毳’ 를 앞 뒤 의문문중간에 위치한 連詞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즉 先秦문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耶?, 抑……乎?’ 와 같은 격식으로 보면 될 것이다. 혹은 ‘毳’ 를 ‘抑’ 의 가차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上古音에서 ‘毳’ 는 ‘影母脂部’ 에 속하고, ‘抑’ 은 ‘影母質部’ 에 속한다. 두 글자는 같은 聲母에 속하고, 韻部 역시 陰入對轉 관계에 있어 通假 가능하다.



⑤ 航

이 字形은 본 篇에서 두 번 보이고 있다. 본 편 정리자인 陳佩芬은 ‘舫’ 로 隸定하고 ‘舫’ 로 해석하고 있다.²³⁾ 그러나 자세히 비교해보면 본 字形의 聲符는 ‘尃’ 와 조금 차이가 있다.

甲.  《上博(六)·莊王既成》 3.25  《上博(六)·莊王既成》 4.9

乙.  《上博(三)·三德》 10  《上博(三)·三德》 1

 《包山》 85  《包山》 85

丙.  《鄂君啓舟節》  《鄂君啓舟節》

甲의 오른쪽 聲符와 乙, 丙의 오른쪽 聲符와는 확실하게 다른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특히 본 篇 정리자인 陳佩芬이 근거로 삼은 《鄂君啓舟節》의 字形과도 차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字形을 ‘舫’ 로 隸定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에 劉洪濤는 본 字形을 ‘從舟, 尃聲’ 으로 분석했다.²⁴⁾ 楚簡에 보이는 ‘尃’ 는

23) 馬承源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六)》, p.245.

24) 劉洪濤, 《釋上博竹書《莊王既成》的‘航’字》, <http://www.bsm.org.cn>.

다음과 같다.

 《上博(三)·周易》 1.19  《上博(三)·周易》 1.24

비교결과 甲의 聲符와 같은 字形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본 字形은 劉洪壽의 견해처럼 ‘從舟, 尫聲’ 으로 隸定할 수 있다. 또한 ‘尫’ 은 上古音에서 ‘明母東部’ 에 속하고, ‘航’ 은 ‘匣母陽部’ 에 속한다. 先秦시대 ‘東, 陽’ 두 韻의 글자는 楚나라 방언에서 假借사용 가능하다.²⁵⁾

(4) 竹四

【原文】

逾(乎)?" 𦨭(沈)尹子莖(莖)曰: "四航以逾①." 【竹四】

① 逾

본 篇 정리자인 陳佩芬은 《說文解字》에 근거해 단순히 ‘越進’ (건너가다.)로 해석하고 있지만, 앞 구절 ‘專車以上’ 의 ‘上’ 과 대응하는 의미로 ‘順水而下’ (물살을 따라 흘러 내려가다.)로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겠다.²⁶⁾

2) 竹簡國譯

【原文】

莊王既城亡鑊, 以問沈尹子莖曰: "吾既果城無鑊, 以供春秋之嘗, 以待四隣之賞, □後之人幾何保之?" 沈尹固辭. 王固問之, 沈尹子莖答曰: "四與五之間乎!" 王曰:

25) 朱德熙, 《朱德熙古文字論集》, pp.10-14.

26) 陳偉, 《郭店竹書別釋》, pp.19-21 참조.

“如四與五之間，載之專車以上乎？繫四航以逾乎？”沈尹子莖曰：“四航以逾。”

【國譯】

莊王이 亡鑊城을 완공한 뒤 沈尹子莖에게 물길: “나는 이미 無鑊城을 완공하여 (세금으로) 봄, 가을에 제사를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주변국가에게 (술과 음식으로) 접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나의 후손들이 언제까지 지켜나갈 수 있겠소?” 沈尹이 대답하기를 꺼려하였다. 왕이 재차 묻자, 沈尹子莖이 답하길: “4대에서 5대사이입니다.” 왕이 말하길: “만약 4대에서 5대사이라면, (그들은) 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언덕을) 올라가는 모습이겠소? 아니면 네 척의 배가 (물살을 따라) 흘러 내려가는 모습이겠소?” 沈尹子莖이 말하길: “네 척의 배가 (물살을 따라) 흘러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三. 結 論

본 篇은 楚나라 莊王이 질문하고 신하인 沈尹이 답변하는 대화체 기록이다. 竹簡의 내용으로 볼 때, 沈尹은 당시 楚 莊王의 신임을 얻고 있었으며, 莊王은 그에게 亡鑊城을 완공한 뒤, 자신의 霸主 위치를 후손들이 언제까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 문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沈尹子莖이 답변을 거부하자 왕은 재차 질문을 하였고, 沈尹子莖은 순풍의 돛단배처럼 물 위를 미끄러져 가듯 4대에서 5대사이까지는 번성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다. 즉 莊王의 후손인 共王, 康王, 靈王, 平王, 昭王까지 평탄한 역사가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莊王과 沈尹에 관련된 일화는 기존 역사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귀중한 史料로, 春秋시기 楚나라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竹簡의 훼손으로 인해 해독이 불가능한 字形이 존재하고, 일부 字形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異見이 존재하기에 향후 새로운 자료를 통해 좀 더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 미비한 부분이 많이 존재하지만, 국내에 최신 출토문헌 자료를 소개하고, 또한 상관 연구자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參考文獻》

- 馬承源主編,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四)》, 上海古籍出版社, 2004. 12.
高亨, 《古字通假會典》, 齊魯書舍, 1997. 7.
何琳儀, 《戰國古文字典》, 中華書局, 1998. 9.
李守奎, 《楚文字編》,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3. 12.
鍾明,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五)研究概況及文字編》, 吉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4.
中國古文字研究會, 《古文字研究》第24輯, 中華書局, 2002. 7.
陳偉, 《郭店竹書別釋》, 湖北教育出版社, 2003. 1.
朱德熙, 《朱德熙古文字論集》, 中華書局, 1995. 2.
何有祖, 〈上博六札記〉, <http://www.bsm.org.cn>.
李學勤, 〈讀上博簡《莊王既成》兩章筆記〉, <http://www.confucius2000.com>
蘇建洲, 〈初讀《上博六》〉, <http://www.bsm.org.cn>.
陳偉, 〈讀上博六札記〉, <http://www.bsm.org.cn>.
陳偉, 〈讀魯邦大旱札記〉, <http://www.jianbo.org>.
劉洪濤, 〈釋上博竹書《莊王既成》的‘航’字〉, <http://www.bsm.org.cn>

《中文提要》

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至今已出版共六冊。刊布以來, 引起學界的高度重視, 許多學者已紛紛撰文來發表個人的看法。《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六)》中〈莊王既成〉一篇, 原整理者陳佩芬先生所作編聯和釋文為學者提供一個很好的研究基礎。該篇共有四支簡, 都完簡無損。共九十三字, 書於竹黃, 字體工整。本篇屬對話體, 記錄莊王築城後問沈尹子莖子孫能有幾代保住亡鏹城之事。個人在研讀該篇的過程中, 參照相關學者的研究成果, 將竹簡全文翻譯成

韓文，其中或有不同於他人之意見，或有補充他人見解之處，或有存疑待考之字。希望給在韓國從事相關研究者提供新的材料。

關鍵詞：上海博物館藏戰國楚竹書(六)，莊王既成，古文字，楚莊王，楚國，沈尹，竹簡

이 논문은 2008년 5월 20일에 접수되어 2008년 6월 2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8년 6월 25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卒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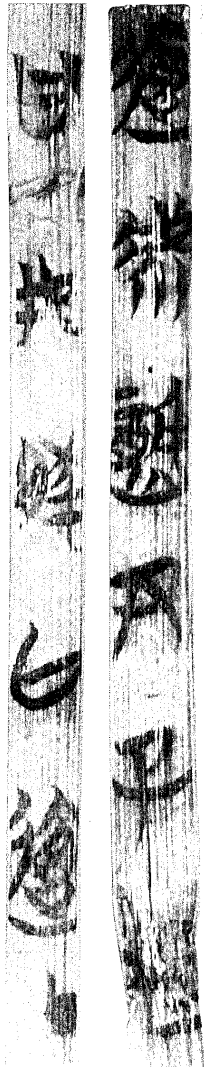
죽1 뒷면



卒2



三三



축4